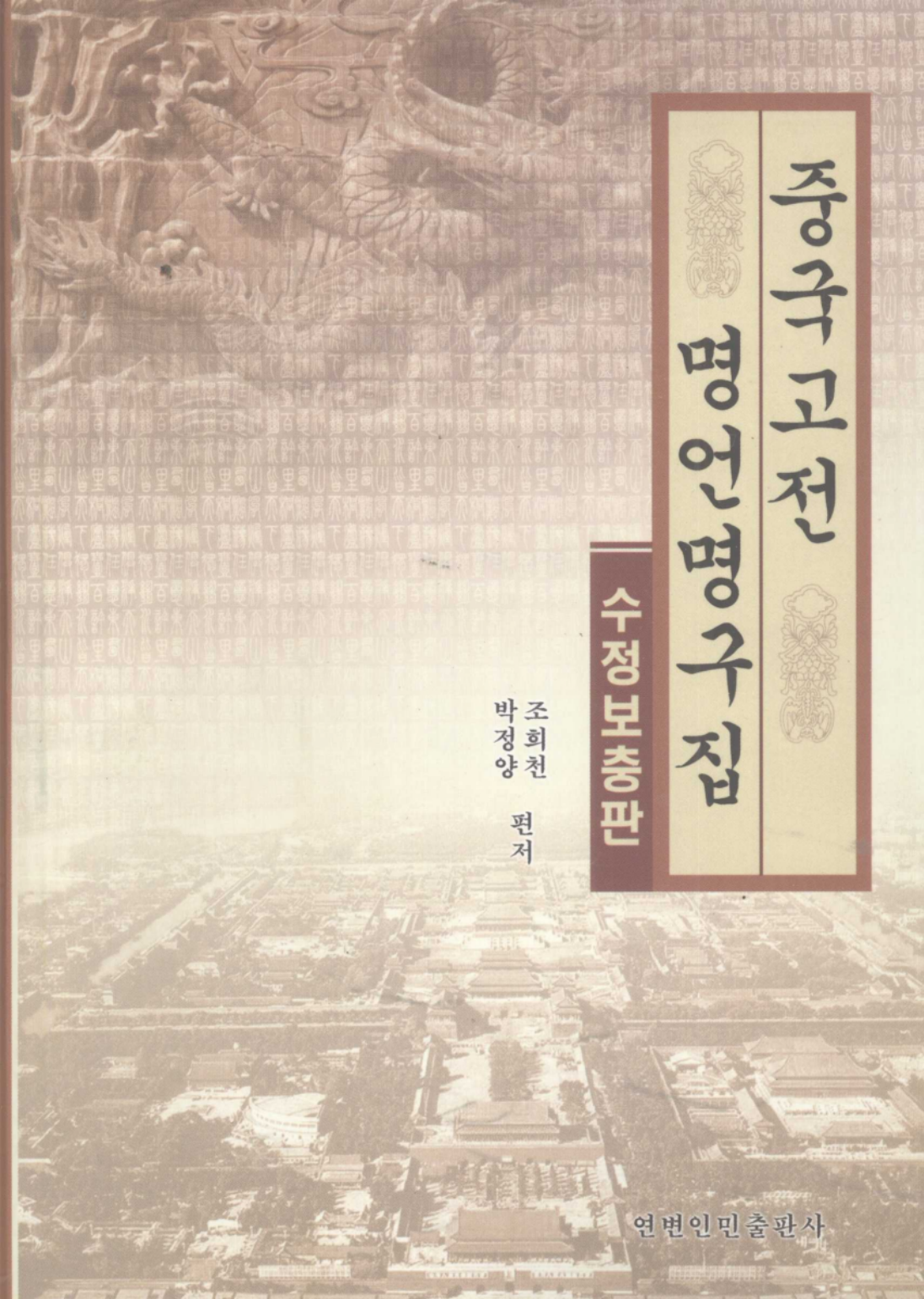




중국고전

명언명구집

수정보총판

조희천
박정양
편저

연변인민출판사

표지설계: 전영걸

ISBN 978-7-5449-0458-2



9 787544 904582 >

定价: 48.00元

중국고전명언명구집

(수정보충판)

조희천 편저
박정양

연변인민출판사

책임편집: 배금희 리명근

책임교정: 남금월

교 열: 김영덕

기술설계: 장학봉

图书在版编目 (C I P) 数据

中国古典名言名句选: 朝鲜文 / 赵熙天, 朴正阳编著.
延吉: 延边人民出版社, 2008.12
ISBN 978-7-5449-0458-2

I. 中… II. ①赵…②朴… III. ①格言—汇编—中国—古代—朝鲜语(中国少数民族语言)②名句—汇编—中国—古代—朝鲜语(中国少数民族语言) IV. H136.3

中国版本图书馆CIP数据核字 (2008) 第212320号

中国古典名言名句选

出版: 延边人民出版社

(吉林省延吉市友谊路363号, <http://www.ybcbs.com>
<http://www.ybcps.com>)

印刷: 延边星月印刷有限公司

发行: 延边人民出版社

开本: 880×1230 1/32 印张: 23.625 字数: 550千字

标准书号: ISBN 978-7-5449-0458-2 (民文)

版次: 2009年1月第1版

2009年1月第1次印刷

印数: 1060册

定价: 48.00元

如发现印装质量有问题, 影响阅读, 请与印刷厂联系调换。

《중국고전명언명구집(수정보충판)》을 내면서

우리는 수십년간 편집사업과 교수사업에 종사하는 과정에 중국고대의 문학, 역사, 철학, 교육 및 기타 분야의 저서들중에서 인생행로의 지침으로 될수 있고 철리성이 풍부하며 사람들에게 높은 미적감수를 주는 명언, 명구들을 접촉할 때마다 이런 명언, 명구들을 책으로 묶고 우리 말로 재현시켜 조선족독자들에게 이바지하고픈 충동을 무시로 받아왔다. 그리하여 우리는 1994년에 이 소망을 이루고져 《중국고대명언명구집》을 펴냈다.

그때로부터 어언간 15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그동안 많은 독자들로부터 이 책에 대한 적지 않은 평판의 말을 많이 듣게 되었다. 이 책이 확실히 편집사업이거나 교수사업에 큰 도움을 주고있다는 과찬의 말과 함께 부분적 올림말과 한조대역문을 좀더 다듬었으면 좋겠다는 편달의 말도 듣게 되었다. 하여 이번의 수정보충판출판기회를 빌어 우리는 문제점을 자상히 검토하고 일일이 수정을 가하고 일부 내용을 보충한 한편 책명도 《중국고전명언명구집》으로 고쳤다.

종전에도 그러했거니와 우리는 《중국고전명언명구집(수정보충판)》을 다시 펴내는 취지를 편집사업에서거나 교수사업에서거나 혹은 기타 분야 례하면 관광, 서예 사업에 종사하는이들가운데서 중국고대명언명구를 자주 접촉하거나 중국고전명언명구의 조선말본의 수요를 느끼는이들께 참고서로 드리고 중국고대문화에 흥취를 느끼는 광범한 독자들에게 읽기 쉬운 통속독물로 드려 머리말에 두고 수시로 익힘으로써 제반 사업과 교제, 생활이 이채를 띠

계끔 도움을 주려는데 두었다.

편찬과정에서도 편찬목적에 근거하여 역시 다음과 같은 점들에 주의를 돌렸다.

첫째, 명언, 명구의 선택에서 시대, 장르, 저술, 저자 등 면을 고루 돌보기에 힘썼다.

둘째, 명언, 명구의 진의를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 일부 구절의 원문은 좀 길게 인용하였다.

셋째, 역문에서는 각종 장르의 특점과 원문의 뜻을 정확히 전달하면서도 문학적, 수사학적 견지에서 표현성을 높이기 위해 힘을 기울였다. 다시말해서 번역문을 물에 비길 경우, 물이 여울을 일으키면 곧 그곳의 물너비가 좁아진다는것을 알수 있고 또 물밑에 자갈이나 돌이나 바위가 깔려있다는것을 알수 있도록 하려 하였다.

넷째, 역문에서는 고대한어원문의 고유한 표현 방법과 수단을 존중하여 억지로 조선어의 표현 방법, 수단에 대응시키려 하지 않았다. 예를 들면 “初生之犊不畏虎”를 구태여 조선어의 속담인 “하루강아지 범 무서운줄 모른다”로 재현시킨것이 아니라 원문의 표현특성을 살려 “갓난 송아지 범 무서운줄 모른다”로 했다. 후자가 전자보다 의미적색채에서나 표현수법 면에서나 미적감수에서 아무런 손색이 없을 경우에는 이렇게 처리하는것을 기본원칙으로 하였다.

다섯째, 이 책의 수정보충을 위해 초판때보다 감절로 되는 힘과 노력을 기울였다지만 아직도 일부 역문에 미흡한 점이 있으리라 짐작하면서 독자들의 시정과 편달이 계속 있기를 바란다.

편저자로부터

2008년 11월

일 러 두 기

1. 이 책에서는 선진(先秦)으로부터 청조말기까지의 서적들이
운데서 골라낸 명언, 명구 6천여조목을 수록하였다. 명언, 명구를
많이 골라낸 서적들로는 선진제자(先秦諸子), 유가경전, 전사사(前
四史) 및 력대의 이름난 작가들의 시문집이다.

2. 매 조목의 격식에서는 조선말역문을 앞에 놓고 그뒤에 한
어원문을 놓았으며 그다음 원문의 저술조대, 저자, 원 저작의 명칭
등을 밝히고 앞에 “△”표로써 밝히었으며 마지막에 일부의 필요한
주석을 달고 그앞에 “*”표로써 밝히었다.

3. 전반 명언, 명구는 구절의 내용, 뜻에 따라 크게 26개 류로
나누어 배열하고 매개 류에는 큰 번호와 제목을 달았으며 매개 큰
류안에 수록된 명언, 명구에는 순서번호를 달아 찾아보기 쉽게 하였
다. 그리고 매개 큰 류안에서는 약간 조목의 작은 분류를 두었다.

4. 책의 맨 마지막 부분에 “한어병음색인[부록]”을 달아 내용,
뜻 분류로 찾아보는외에 한어병음순서에 따라 명언, 명구를 찾아
보기 쉽게 하였다.

차 례

《중국고전명언명구집(수정보증판)》을 내면서	1
일 러 두 기	1
자 례	1
1. 자연과 인간정취	1
광막한 우주	1
그윽한 정취	5
2. 사계절	11
3. 식물과 동물	29
4. 자연경물	57
천지, 일월성신	57
풍운산수	65
5. 인간의 생활조건	93
시골, 농가	93
성곽, 궁궐, 사원, 루대	98
교통도구	103
6. 나라와 인민	110
애국과 치국	110
희망과 성취	119
안위와 외교	122
민본과 민심	131
애민과 대중	135

7. 정치	142
정치의 근본	142
인정과 혹정	148
군신상하	158
납간과 천거	163
시국의 통찰	173
간악을 통책	176
정벌과 전화	181
8. 위인과 영욕	194
길생김과 마음씨	194
명성과 영예	204
영욕과 회방	209
기호와 욕망	212
9. 룬리도덕	216
도덕과 도의	216
인의와 례의	222
10. 의력과 포부	231
웅심대지	231
과감과 전심	240
포부와 성공여부	247
11. 정감	252
사랑과 사모	252
즐거움과 근심	262
비통과 원한	269
분노, 회한, 두려움	279
향수와 석별의 정	280
석춘과 회춘	292
애증과 은원	299

12. 지혜와 식견	302
충명과 미련	302
통찰, 견문	305
시비판단	309
13. 인재	312
인재론	312
인재의 육성과 사용	317
14. 품성	332
선과 악	332
공정과 충직	339
강직과 지조	346
죽음과 의리	359
겸손과 교오	361
근검과 사치	364
렴결과 탐욕	368
수신과 개과	372
15. 가르침과 배움	382
스승의 도와 가르침	382
학습 태도와 방법	387
학습의 중요성	391
독서와 광음	397
16. 언행	406
미언과 악언	406
직언과 완곡어	411
언어와 행동	414
17. 사교와 처사	417
인간지간의 인식	417
인정세태와 풍속	419

우의와 보답	422
처사	433
행동과 시기	439
시작과 성패	452
18. 가정	457
가정, 혼인, 부부	457
부모와 자식	461
형제자매	465
19. 생활	467
인생	467
의식주	470
려행	471
양생과 병치료	472
생사	475
소일과 은거	477
전송과 영접	493
로년	499
고독	503
20. 세상의 도리	506
인간세대	506
길흉과 빈부	511
21. 철리	519
하늘과 인간	519
고금	522
명칭과 실체	523
같음과 다름	524
일면성	526
상대성	527

반면성	528
전면성	531
추리	536
지와 행	537
22. 생산과 경제	539
농사	539
잡기	541
경영과 저축	544
23. 법률	549
립법과 집법	549
상벌	553
24. 문학예술	557
글의 작용	557
문체	561
글짓기 원칙	564
구상과 창작	566
수식과 언어	569
서예와 회화	574
음악과 무용	575
아름다움과 추악함	579
25. 군사	581
전쟁	581
장령	583
작전	585
모략	588
사기와 승패	590
26. 사물의 본성과 일의 도리	592

1. 자연과 인간정취

광막한 우주

- 1 맑진 기운 남은 티끌 가져내니
하늘은 아득히 멀고 높아지네
清气澄余滓，杳然天界高
△진(晉)·도연명(陶渊明) “기유년 9월 9일(己酉岁九月九日)”
- 2 들판은 드넓고 백사장은 말끔한데
하늘은 높고 가을달 밝네
野旷沙岸净，天高秋月明
△남조 송·사령운(谢灵运) “군청에 처음 가서(初去郡)”
- 3 들판과 강언덕은 백사장에 이어있고
련이은 산봉들은 안개 타고 떠있누나
野岸平沙合，连山远雾浮
△남조 량·하손(何逊) “자로기(慈姥矶)”
- 4 천리에 흐르는 강물우로
외로운 쪽배 홀로 떠가고
애오라지 옛 루각에 비낀 달만이
원근에서 사람뒤를 따라나서네
大江阔千里，孤舟无四邻。唯余故楼月，远近必随人

- △남조 랑·주초(朱超) “쪽배에서 달을 바라보며(舟中望月)”
- 5 험준한 산세 타고 뺨은 장성
구름과 나란히 만리에 떠있네
长城地势险, 万里与云平
- △남조 랑·우희(虞羲) “곽장군의 북벌을 노래하네(咏霍将军北伐)”
- 6 별판이 넓으니 하늘도 나무보다 낮아보이고
강물이 맑으니 달도 사람과 가까와보이네
野旷天低树, 江清月近人
- △당조 ·맹호연(孟浩然) “건덕강가에서 류숙하며(宿建德江)”
- 7 별판이 아득하니 새날을 늦어보이고
바람 차거우니 말터럭 강굴어지네
地阔鸟飞迟, 风寒马毛缩
- △당조 ·류장경(刘长卿) “붓 던지고 안서로 떠나는 우군과 작별하며(赠别于群投笔赴安西)”
- 8 만리 평야에 오가는 사람 없는데
락조 비긴 천산에 새들만 날아예누나
平芜万里无人去, 落日千山空鸟飞
- △당조 ·류장경(刘长卿) “송강역루각에 올라 북쪽 고향을 바라보며(登松江驿楼北望故园)”
- 9 하늘에서 쏟아져 동해로 줄달음치는 황하수,
만리흐름 굽이쳐 이내 가슴에 흘러드누나
黄河落天走东海, 万里写入胸怀间
- △당조 ·리백(李白) “배씨네 열넷째에게(赠裴十四)”
- 10 창문은 서산의 천년설을 머금었고
문앞에는 동오의 만리배가 정박했네
窗含西岭千秋雪, 门泊东吴万里船
- △당조 ·두보(杜甫) “절귀 4수(绝句四首)”

* 서산—사천의 민산을 가리킨다. 성도서쪽에 있는 민산에는 1년 사시절 눈이 덮여있다.

* 동오의 만리배—촉강은 동으로 흐른다. 성도성밖에서 배를 타고 촉강을 따라 내려가면 곧추 동오로 갈수 있었는데 이 시기에 두 보는 사천을 떠나 동오로 유람갈 생각이 간절했었다.

- 11 가없는 가을산에 단풍이 우수수 떨어지고
끝없이 기나긴 장강은 거세차게 흘러오네
无边落木萧萧下, 不尽长江滚滚来

△당조·두보(杜甫) “높이 올라서(登高)”

- 12 허허넓은 평야끝엔 별들이 내리드리웠고
용용한 강물속에선 달님이 솟아오르네
星垂平野阔, 月涌大江流

△당조·두보(杜甫) “려로의 밤느낌을 적노라(旅夜书怀)”

- 13 저녁무렵 산정 방장 찾아오르니
백리안의 추호도 환히 보이는듯
上方重阁晚, 百里见秋毫

△당조·두보(杜甫) “산중의 절(山寺)”

* 산정 방장—방장은 화상, 국사, 주실 등의 고승들이 거처하는 처소.

* 추호—가을에 새와 짐승들이 털갈이를 할 때는 털이 몹시 보드랍다. 이를 추호라 한다.

- 14 가없는 별판으로 사람모습 가물가물 찾아들고
아득한 하늘가로 새들이 까마득히 사라지네
旷野看人小, 长空共鸟齐

△당조·잠삼(岑参) “최씨네 열셋째 시어가 보내온 ‘옥루산에 올라 고향을 그리네’에 화답하여(酬崔十三侍御登玉垒山思故园见寄)”

- 15 병장기 휘두르는 세월이라

하늘땅 좁게만 느껴지네

自从兵戈动, 遂觉天地窄

△당조 · 잠삼(岑参) “서촉땅 려사에서 봄을 맞아 조정의 옛 벗에게 보내여 적평사에게 올리노라(西蜀旅舍春叹寄朝中故人呈狄评事)”

* 하늘땅 좁게만 느껴지네-전란속에서 무사히 지낼 곳이 없음을 말한다.

16 강우엔 돛이 높이 걸려있고

문밖엔 주기가 낮게 드리웠는데

여섯 조대의 흥망성쇠 이야기는

어부, 초옹들 담소속에 오고가네

天际客帆高挂, 门外酒旗低迓. 多少六朝兴事, 尽入渔樵闲话

△송조 · 장승(张升) “리정연(离亭燕)”

* 여섯 조대-3국때의 오나라, 동진, 남조의 송, 제, 량, 진 등 여섯 조대가 남경에 서울을 정했었다.

17 기암절벽 하늘높이 솟아있고

강기슭 들부시는 벽파

천만갈래 물바래로 흩어지누나

乱石穿空, 惊涛拍岸, 卷起千堆雪

△송조 · 소식(苏轼) “념노교 · 적벽의 옛일을 추억하며(念奴娇 · 赤壁怀古)”

18 못산에 락엽 지니 하늘은 넓고 멀어지고

가을물 맑으니 비긴 달 밝고밝네

落木千山天远大, 澄江一道月分明

△송조 · 황정건(黄庭坚) “쾌각에 올라(登快阁)”

19 초나라 가을하늘 끝없이 맑게 개였는데

강물은 하늘빛따라 아득히 뻗었네

楚天千里清秋, 水随天去秋无际

△송조·신기질(辛弃疾) “수룡음·건강의 상심정에 올라(水龙吟·登建康赏心亭)”

* 건강-남경을 가리킨다.

- 20 석양은 갈가마귀떼속에서 사라지는데
동남 4백주를 눈뿌리 빠지게 바라보네
夕阳一片寒鸦外, 目断东南四百州

△송조·왕원량(汪元量) “호주의 노래(湖州歌)”

- 21 동남의 승경 만고에 가관이었던만
영웅호걸 백년에 몇몇이 찾아왔더냐
万古东南多壮观, 百年豪杰几登临

△원조·주비(周槩) “부람정(富览亭)”

- 22 하늘밖에 나는 새 눈에 못산은 거울 같고
구름우에 뜬 사람 눈에 바다는 잔 같으리
鸟飞天外山如镜, 人到云中海似杯

△청조·서원문(徐元文) “높은 봉에 올라(登男崩峰)”

- 23 푸른 하늘 담긴 맑은 강속에서
초생달이 미역 감고 솟아오르네
青天如澄江, 片月初洗出

△청조·혜주척(惠周惕) “밤에 앉아 느낀바가 있어(夜坐有怀)”

그윽한 정취

- 24 흩어지는 락하는 채단이런가
고요한 가을물 흰 비단이런가
余霞散成绮, 澄江静如练

△남조 제(齐)·사조(谢朓) “저녁녘에 삼산에 올라 서울을 바라보며(晚登三山还望京邑)”

- 25 매미울음에 수림은 더더욱 적막하고